

길다 vs 멀다

길이가 길다 · 거리가 멀다

거리를 말할 때 ‘길다’와 헷갈리기 쉽지만, 한국어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길다 는 물건의 길이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고, 멀다 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 한눈에 비교

단어	핵심 의미	뉘앙스	자주 쓰는 형태
길다	길이·기간이 길다	물건의 길이 (머리카락, 다리, 줄)와 기간 (방학, 겨울, 영화).	머리가 길다 시간이 길다
멀다	거리가 멀다	장소 사이의 거리. 보통 A에서 B까지와 함께 씁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한참 남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A에서 B까지 멀다 집이 멀다

■ 차이점

1. 길이 vs 거리. 사물 자체가 긴 것: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다), 줄이 길어요 (줄이 길다). 두 장소 사이는 먼 것입니다: 회사가 멀어요 ○ / 회사가 길어요 ×. ‘학교까지 가는 길이 멀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가 멀어요.

2. 둘 다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뜻이 다릅니다. 길다는 어떤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입니다: 방학이 길어요 (방학이 길다). 멀다는 어떤 일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방학까지 아직 멀었어요 (방학은 아직 멀었습니다) ○ / 방학까지 아직 길어요 ×. 이 굳어진 표현에서는 과거형 멀었어요를 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3. ‘오랫동안’은 오래. 어떤 행동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말할 때는 부사 오래를 씁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 / 길게 기다렸어요 △. 길다는 명사를 꾸밀 때 씁니다: 긴 시간 (긴 시간).

문장	길다	멀다
제 동생은 머리가 ____.	◎	×
집에서 회사까지 ____.	×	◎
이번 여름 방학은 두 달이라서 ____.	◎	×
시험까지 아직 ____.	×	◎
이 바지는 저한테 좀 ____.	◎	×

◎ 자연스러움 ○ 가능 △ 어색함 × 틀림

■ 한 걸음 더

거리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에서와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가 길다나 멀다보다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 연습 문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길다, 멀다

1. 기린은 목이 ____.

정답 길어요 — 물리적인 길이는 길다입니다.

2. 공항이 시내에서 ____ 택시를 탔어요.

정답 멀어서 — 장소 사이의 거리는 멀다입니다.

3. 줄이 너무 ____ 30분이나 기다렸어요.

정답 길어서 — 줄은 길이가 있습니다: 줄이 길다.

4. 우리 집은 역에서 안 ____ 걸어서 5분이에요.

정답 멀어요 — 역에서 가깝다 = 멀지 않다, 안 멀다.

5. 한국의 겨울은 ____ 추워요.

정답 길고 — 기간이 긴 것은 길다입니다.

■ 예문

1 저는 머리가 길어서 아침마다 말리는 게 힘들어요.

2 학교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요.

3 은행 앞에 줄이 정말 길어요.

4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5 한국의 겨울은 길고 추워요.

6 고향이 멀어서 자주 못 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우리 집은 학교에서 길어요.

○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어요.

가는 길이 먼 것은 거리의 문제이므로 길다가 아니라 멀다를 씁니다.

✗ 방학까지 아직 길어요.

○ 방학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한참 남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어요라고 합니다.

✗ 저는 한국에서 길게 살았어요.

○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동사와 함께 ‘오랫동안’이라고 할 때는 길게가 아니라 부사 오래를 씁니다.